Premium Report 제50호
(2018. 8. 31)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작 성 자 : 도윤희 연구원
내용 문의 : T - (031) 231-3423 / E - yunhee@kici.re.kr

1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필요성

➢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장 정체와 공사업체의 저조한 경영성과에 대한 돌파구로 해외진출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임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활용을 통한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하여'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12)'을 마련하고 ICT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중요 정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
  - 정보통신공사업의 '17년도 실적은 14조 3천억 원으로 '14년 대비 5.3% 상승하였으나 업체당 평균실적 부문에서는 반대로 6% 감소(17.7억 원→16.6억 원)한 것으로 나타남

〈정보통신공사업 연도별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공사실적	13,611,711	13,476,848 (1.0%↓)	13,053,795 (3.1%↓)	14,326,760 (9.8%↑)
업체당 평균실적	1,776	1,672 (5.9%↓)	1,579 (5.6%↓)	1,669 (5.7%↑)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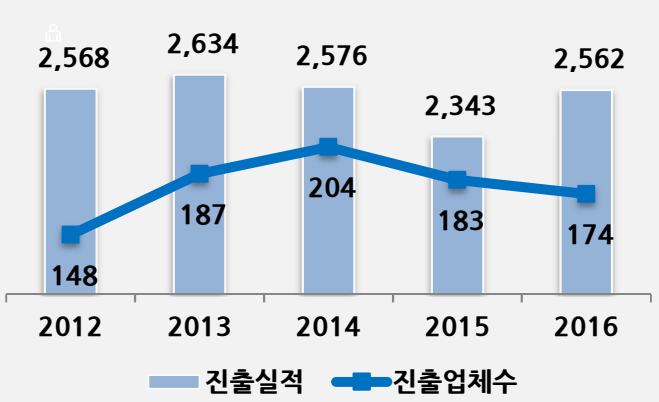
-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장돌파구로 해외진출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은 유사·유관 산업 대비 낮은 실적에 머물고 있는 상태임
  - 해외진출 실적은 최근 5년 간 평균 2,537억 원으로 전체 실적 대비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

2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현황

➢ 정보통신공사업은 낮은 해외진출 실적과 유사·유관 산업과의 해외실적 비교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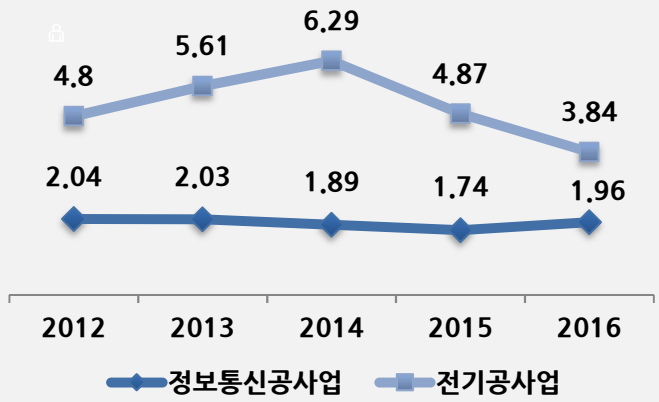
-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2,537억 원으로 전체 실적 대비 1.9%를 차지
  - '16년도에는 전년대비 4.9% 감소한 174개사가 진출하여 실적을 나타냄('16년 전체 등록업체수 9, 153개사)
  - 전기공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해외실적은 전체 실적 대비 평균 5.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대비 2.6배 차이를 보임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적 (단위 : 억원, 개사)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체실적 대비 비중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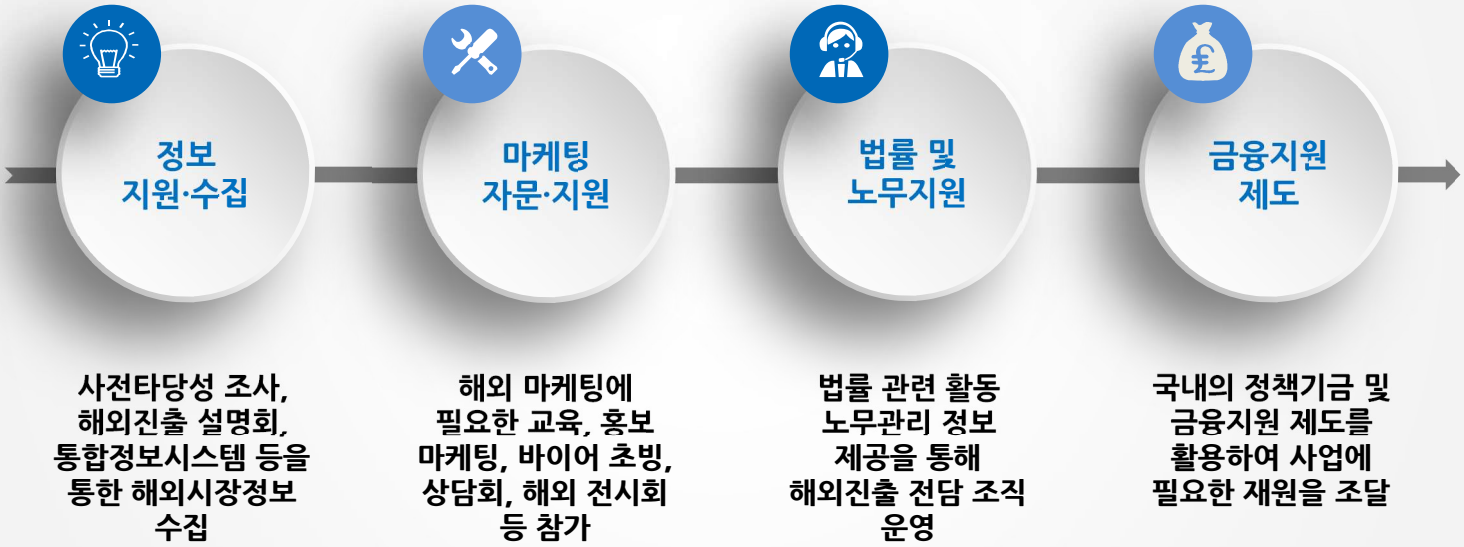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 기관 및 활용제도(1)

➢ 해외진출사업은 사업별 특성과 환경 및 규정 등이 상이하며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진출 리스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됨

- 따라서 자금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정보수집, 마케팅 자문, 법률 및 노무지원 및 국내의 정책기금 및 금융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해외진출에 대한 준비가 가능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 기관 및 활용제도(2)

➢ 해외진출 지원제도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기관의 역할에 따라 마케팅 및 인프라 지원, 지원체제 운용, 협력 네트워크 운영, 자금지원 등의 형태로 운영됨

금융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대출, 해외투자자금, 사외사업자금, 현지법인 사업자금,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 이행성 보증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금융지원, 대금 미회수 위험담보, 환리스크관리, 중소중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
- **SGI 서울보증**
  보증보험, 신용보험, 이행성보증대출, 해외복보증 등
- **KDB 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운영자금 대출, 보증, 수출입금융 상품, Project Finance 등
- **정보통신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해외복보증/수출입 자금지원/(잠재)수출기업 지원

정책기금/MDB

- **대외협력기금(EDCF)**
  차관, 보증, 융자
- **세계은행그룹(WBG)**
  투자차관, 개발정책차관
-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반자금차관, 아시아개발기금(ADF)운영, 지분투자, 공여, 기술지원, 기타특별기금
- **아시아인프라부문투자은행(AIIB)**
  정보 인프라 융자, 시설 인프라 융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별 협력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해외긴급 구호사업(DAP)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 기관 및 활용제도(3)

➢ 해외진출 지원제도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기관의 역할에 따라 마케팅 및 인프라 지원, 지원체제 운용, 협력 네트워크 운영, 자금지원 등의 형태로 운영됨

정부 및 유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정보화컨설팅, SW현지화/마케팅, SW현지형 인력양성, 스마트컨텐츠 홍보/마케팅, 해외서비스인프라지원, 해외정보제공시스템, 컨설팅지원, 해외로드쇼 중소기업지원, 해외 IT지원센터 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global, 해외프로젝트 정보수집, 해외 수주지원, 투자환경 조사지원, 무역투자교육연수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해외진출 활성화, 개발은행 협력지원, IoT 해외로드쇼,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해외 IT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 분야해외진출 지원 등

관련 협회 및 기타

- **해외건설협회(ICAK)**
  시장개척지원,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건설 교육 등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방송장비 해외진출지원사업,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등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SA)**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해외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 등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기타**
  해외 현지조사 지원,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사이트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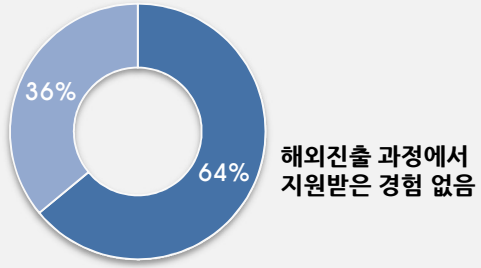
4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 환경(1)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공사업체는 일부 대기업(공사업체)에 불과한 실정**

- **국내 해외진출 지원 환경 및 제도 지원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공사 중심(현장,인력)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환경은 부족한 실정**
  - 금융지원에 대한 프로세스 역시, 물리적인 공사 중심의 공사업체가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일부 중견·대기업의 형태나 특성을 갖춘 공사업체에 한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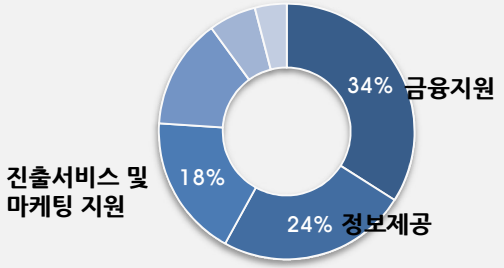
해외진출 지원 경험

- 정보통신공사업체 1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17) 지원받은 경험 없는 업체가 64%를 차지
-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26.5%)이 가장 큰 개선점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해외진출 지원 수요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지원 중 금융지원, 정보제공을 가장 필요로 함
-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활용 정보 및 지원기능 확대 등이 필요
- 지원분야 산업 확대(제조업 중심에서 인력 중심으로의 공사분야 등) 수요 또한 높음



4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 환경(2)

➢ 법제도적 측면과 시장기능 측면에서 이를 관할하는 소관부처의 **2중적 시장·산업 구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

-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사한 공사 성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
  - 정보통신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법·제도적 지원을 위해 기초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2중적 시장·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건설부문에서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 추진에 있어 제도적 지원에 대한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식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낮음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해외진출 추진 환경은 지원기관별 다양한 지원 및 선정 기준에 대한 공사업체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조직의 부재에 따라 간접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해외진출 환경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자체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해외진출 수요 기업은 흩어져 있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과 전문 인력의 섭외, 사업컨설팅, 국가별 법·제도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자체적인 활동으로 소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관련 지원에 대한 소외환경을 인식하고 저조한 해외진출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 및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5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 방안(1)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은 초기 정책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사업체 지원, 진출 시장 판로 발굴, 진출기반 확립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마련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에 해외시장 개척 자금 및 OJT 지원 확대

- 대부분의 공사업체가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하며 해외사업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및 사업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이 상당수임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공사업 특화 인력 양성 교육 및 사업현실화가 필요

정부 주도 지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략국가의 확대

- 해외 발주자 초청행사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와의 실질적 교류 및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국가 확대 및 중장기적 MDB 파견 및 Reference 확보 등의 수주지원 확대로 연계함으로써 공사업체의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주관부처의 지원정책 창구 단일화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글로벌 ICT 우위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활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5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 방안(2)

➢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공사업체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통한 해외진출 업체 지원영역 확대 및 기능을 강화**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마련으로 해외진출과 관련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확립

-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특화조직 신설 또는 독립적 기관 설립 및 운영 필요
- 센터 내 해외진출 관련 전문인력 배치, 실효성 높은 정보 보유, 자체적인 해외진출 활용 전략 발굴, 해외진출 지원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가능한 센터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

일시적인 해외시장 진출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해외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공사업체의 자체적인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

- 공사업체의 해외진출 활용은 내부 경영진의 안정적 해외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을 마련하고 해당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역량강화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 즉,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내부적인 해외진출 지원기능의 배양도 병행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6 결론 및 시사점

➢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지원에 대한 환경을 인식하고 해외진출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 및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지원 방안과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해외진출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강점 분야를 활용한 전략적 시장 지원을 통한 성과 달성 및 시장 구축 등의 정책적 활동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해외진출 종합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해외진출 환경은 초기 단계로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마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실적 증대 및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외진출 지원 특화 조직 신설 또는 독립적 기관의 설립을 통해 전문인력 배치, 실효성 높은 정보 보유, 자체적인 해외진출 활용 전략 발굴, 해외진출 지원 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규모 확대**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6년도부터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수주활동 등을 지원(총 1억원)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해외진출 수요 공사업체를 위한 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임
- 즉, 일부 업체만이 활용할 수 있는 부족한 지원규모는 산업 전반에 걸쳐 해외진출 활성화로 연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함